

칼빈신학과 웨슬레 신학의 구원론 비교 이해

(구원서정을 중심으로)

指導 이은선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년 12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전공

이 정 구

이정구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정구 印

審査委員 김성봉 印 S.B.Kim

審査委員 이은선 印 Eem

審査委員 _____ 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년 12 월

謝

辭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신 이은선 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999년 12월

이 정 구

목 차

I.	서 론	7
	A. 연구 동기와 목적	8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II.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형성 배경	10
	A. 요한 칼빈의 신학형성 배경	10
	1. 시대적 배경	10
	2. 체험적 배경	12
	3. 신학적 배경	16
	B. 요한 웨슬레의 신학형성 배경	18
	1. 시대적 배경	18
	2. 체험적 배경	20
	3. 신학적 배경	25
III.	칼빈 예정론과	27
	웨슬레의 선행은총론 비교	
	A. 구원론 형성 배경에 대하여	27
	B.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28
	1. 타락의 원인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28
	2. 원죄에 대해서	29
	C. 예정론과 선행은총에 대해서	31
	1. 구원의 역사 방법에 대해서	31

2.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33
3.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34
IV. 칼빈과 웨슬레의	36
구원의 서정 비교 이해	
A. 구원의 서정 관점 비교	37
B. 구원의 서정상의 차이	38
1. 칭의론	39
2. 성화론	41
3. 로마서 8장 29절-30절에 대하여	43
V. 신학적 특징	47
A. 요한 칼빈의 신학적 특징	47
B. 요한 웨슬레의 신학적 특징	50
VI. 결 론	54
* 참고문헌	57

I. 서론

개신교 선교 1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 개신교는 1천만 교세를 이룩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적 장로교와 아르미니안 웨슬레주의적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회, 나사렛, 구세군 등등으로 계보를 나눌 수 있다. 한국 개신교회가 신학적으로 그 원류를 찾아서 신학적 노선을 명백하게 정립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신학은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법론이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립된 신앙체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칼빈 신학과 웨슬레 신학도 그러하다. 칼빈의 신학은 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확립된 신앙체계이다.¹⁾ 그가 많은 서적을 연구하고 여러 대학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들에 영향을 받았으나²⁾ 그것이 그의 신학의 주류가 된 것은 아니다.

웨슬레 역시 초대교회 교부들의 사상과 여러 서적들을 연구했으나³⁾ 그의 신앙체계의 확립은 1738년 5월 24일 울더스게이트(Aldersgate) 체험에서 비롯된다.⁴⁾ 즉 칼빈 신학과 웨슬레 신학은 칼빈과 웨슬레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확립된 신앙체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론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두 신학을 다른 신학보다 성서적 신앙체계로 인정하므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갖는다. 그것은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며 신앙과 신학을 주도해 온 것이 바로 칼빈 신학과 웨슬레 신학이라 하겠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신학의 여러 분야중 구원론을 취급한다. 그것은 기독교가 도덕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계시종교이기 때문이다. 구원론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칼빈과 웨슬레 신학을 고찰하려고 한다.

A. 연구동기와 목적

최근의 추세는 칼빈과 웨슬레의 차이점 보다 일치점 확인에 더 많은 관심

1)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한신대출판부, 1984), pp.18-23, 71.

2) Ibid., pp.11-17.

3) 송홍국, 「요한 웨슬레」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0), pp.56-62.

4)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p.41-56.

을 기울이는 입장이다. 「요한 웨슬레의 재발견」을 저술한 셀(Cell)은 “우리가 웨슬레의 가르침과 설교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웨슬레의 신학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으로부터의 이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재인식과 재발견이었다”⁵⁾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아래 칼빈신학의 형식 구성원리 중에 “일치라고는 하나 혼합은 아니다. 구별이기는 하나 분리는 아니다.”⁶⁾는 표제가 있다. 이 말은 진리 규명에 있어서 혼합보다 일치에, 분리보다는 구별에 그 중요성이 있음을 밝혀 준다. 캐논박사는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웨슬레의 신학이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신본주의 신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칼빈이나 어거스틴과 다름이 없다”⁷⁾고 말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레의 구원론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과 웨슬레의 구원론의 핵심을 살펴봄으로써 웨슬레의 구원론이 칼빈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칼빈의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B.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칼빈신학과 웨슬레 신학의 구원의 서정을 비교 고찰하되, 연구방법과 범위는 주로 칼빈과 웨슬레의 저서들을 주 자료로 삼아 기독교강요와 웨슬레 통서를 연구하고 그 외 여러 가지 학자의 견해를 보조자료로 삼는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과 구원론의 중요성 및 연구목적의 피력하여 논문의 방향을 설정하고, 2장에서는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적 형성배경에 대해서 시대와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중 구원론의 배경을 이루는 예정론과 선행은총에 대해서 살펴봄, 제4장에서는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론 중 구원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비교 이해하고, 5장에서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적 특징을 살펴본 후에, 끝으로 두 신학을 중요한 입장을 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면서 칼빈의 하나님 절대주권의 사상의 재 고찰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개념을 정확히 세우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5) George G.Cell, 「존 웨슬레의 재발견」 송홍국 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p.157.

6) W.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 기독교서회, 1980), p.244.

7) 조종남, op. cit., p. 12.

II.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형성 배경

A. 요한 칼빈의 신학형성 배경

1. 시대적 배경

칼빈은 중세 천년 동안 이어져온 기독교 봉건체제에 14세기부터 시작된 인문주의 영향으로 새 역사의 태동이 시작되던 때인 1509년 7월 10일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Noyon 시에서 태어났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교황권과 황제권이 교차되는 중요한 시기였고, 사회적으로는 상공중산층이 발흥하는 시기였고, 종교적으로는 교황권의 실추 및 부패로 인한 교회 개혁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고전문헌을 연구하던 인문주의의 영향이 대두된 시기였다.

정치적 상황은 교황과 주교들이 중심한 교권과 교권 통제하의 정치형태에서 벗어나려는 세속 통치권과의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였다. 인문주의(Humanism)의 영향으로 로마교회가 가졌던 절대지배권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주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여⁸⁾ 1438년에 프랑스 성직자에 의해 교황권 제한주의를 그 골자로 하는 부르췌국사 조칙이 공포⁹⁾ 되었으며, 그 후 프란시스(France) 1세가 주교를 임명함으로써 프랑스 왕의 권위가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처럼 왕의 권위가 강해져 왕이 주교임명을 마음대로 하게 되자 결국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성직자들이 교회 비용을 쓰면서까지 왕의 환심을 사려했다.¹⁰⁾

종교적 상황 역시 참으로 개탄할 만 했다. 칼빈의 교회에 대한 논평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눈을 통해 당시의 교회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칼빈에 의하면 당시교회는 “세상적으로 자기를 보호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박탈당한 채 모든 것을 풍부히 가지고 있고 가공할 권세로 무장하고 있는 원수의 발아래 짓밟혀 있다.”¹¹⁾ 교회는 도둑의 소굴이 되었고, 교권체제는 “법도 구속도 없이 무질서한 상태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관과 같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그것과는 전혀 낯선 기관이 되어 버렸다. 고대 교회의 법령들과 관습들

8) 이종성, 「칼빈」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p. 8.

9) T.H.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2), p. 19.

10) Ibid,

11) John Calvin, 「시편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2), 시편 123:3 주석

로부터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¹²⁾고 했다. 칼빈 당시의 교회들은 세속적인 모든 악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탐욕스런 성직자들이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착복했고”¹³⁾ “사치에 빠져 오직 금과 은만을 생각하고”¹⁴⁾ 마음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한 사제회 수도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남의 여자를 희롱하지 않고 집에 간부를 두고 만족하는 자들은 정숙하고 절제심 있는 수도사로 여겨질 정도였다.”¹⁵⁾ 또한 고위 성직자들의 부패도 극에 달했다. 교황은 자기들이 모든 세상적 권위 위에 서야 한다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구속할 어떤 지상적인 법정도 허락하지 않았다.”¹⁶⁾ 교황은 자신을 모든 판단으로부터 면제하고는 전횡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의 변덕을 법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확실히 교회의 질서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낯설어서 어떤 방식으로도 결코 참아 낼 수 없다”¹⁷⁾고 했다. 참으로 교황의 전횡은 세속군주의 전횡보다 더 악한 것이었다. “주교들은 자기들의 교구를 단지 수입의 원천으로서만 보았으며 자신을 반쯤은 신적인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있었다.”¹⁸⁾

이처럼 당시의 종교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 교회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

또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포기하고 부패해 갈 때 사회 또한 당연히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중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도시들은 “사치, 교만, 허영, 쾌락,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그리고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¹⁹⁾

이처럼 16세기초의 상황은 부스마가 가리켜 “고장난 세계”라고 했듯이 정치 종교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의 공통점은 인본주의적 시대로 타락 부패 갈등만이 가득 찬 하나님의 주권이 요청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 한줄기 새 역사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었는데 바로 인문주의였다. “종교개혁운동의 외적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1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김중흠외3인 공역 (서울 : 생명의말씀사, 1985),

IV.5.13. (이후 Inst. 로 표기함)

13) Ibid.

14) Calvin, 이사야 60:9 주석.

15) W.J.부스마, 「칼빈」 박종숙 역 (서울 : 나단출판사, 1991), p. 143.

16) Inst. IV. 7. 13.

17) Ibid.

18) Calvin, 예레미야 27:16 주석.

19) W. J. 부스마, p. 136.

들 중 하나가 인문주의였다.”²⁰⁾ 14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인문주의는 16세기에 이르러 에라스무스 같은 인물에 의하여 성서적 인문주의로 이어졌다. 이 운동은 성서를 기독교의 중심 자리에 놓으려 했으며, 이 운동의 중심적인 주장은 성서가 신적 계시에 대한 독보적인 원천이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²¹⁾ 이 운동은 고대의 고전적 언어들인 희랍어 라틴어 및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와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 대한 연구로 되돌아가 가장 고대적이고 비평적이고 확증된 원전들 속에서 발견된 원래의 기독교로 되돌아가는 길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서적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부패한 교구의 사상과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정치권을 배후로 하면서 강하게 투쟁하고 있었는데 주요 인물로는 독일의 루터, 쾰른의 쾰빙글리, 그리고 스위스 베른의 파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의 개혁운동의 불길은 뿔박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도시로 번져나갔다. 특히 루터의 개혁운동은 파리, 리용 그리고 여러 대도시로 번져나갔다. 또한 모(Meaux)를 중심으로 해서 살롱(Salons)같은 다른 여러 교구로 개혁운동이 확산되어 나가 늦어도 1520년대 중반에는 노용의 삐까르(Picard)시에는 루터파들이 있었다.²²⁾

이처럼 칼빈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이 요구되는 시대였으며 그 속에서 개혁운동의 불길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는 시대였다.

2. 체험적 배경

칼빈의 구원론 형성의 간접적 배경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의 학문연구 시절을 들 수 있고, 직접적 배경으로는 급작스런 개인적 회심의 배경을 들 수 있다.²³⁾

칼빈은 어려서부터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엄격히 자라났고 인근 지방의 귀족 가문의 몇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다. 이러한 어려서의 배경은 칼빈이 도덕적 학문적 소양 발달에 안정감을 주었다.²⁴⁾

20) 시드니 휴튼, 「기독교교회사」 정중은 역 (서울 : 나침반사, 1991), p. 131.

21) 윌리엄 A 스코트, 「개신교 신학사상사」 김쾌상 역(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p. 52.

22) E. S. Moyer, 「인물중심교회사」 광안전, 심재원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6), p. 291.

23) 프랑시스 웬델, 「칼빈주의 신학 서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편역 (서울 : 기독교문화사, 1986), p. 22.

24) Ibid.

1523년 14살 때 마르세이유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이 대학에서 당대 이름이 높던 라틴어 교수 코디에(Mathurin Codier)에게서 라틴어를 배웠는데, “처음 받은 이 언어학적 훈련은 그의 성서주의에 결정적이었다.”²⁵⁾ 이후 마르세이유 몽테규대학으로 전학하였는데, 이 몽테규 대학은 “고대 공동생활 형제단 수도원의 영향을 받은 학장 장 스탕동(Jean Standonck)의 이념에 따라 수도원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규율 하에 사제와 개혁적인 수사가 될 준비를 시키는 학교였다.”²⁶⁾ 검소한 식사, 엄격한 도덕적 생활의 강조, 정기적이고 공적인 죄의 고백을 준비하면서 각자의 양심을 돌아보는 등의 이 대학 분위기는 장차 신학도가 되기에는 적합한 곳이었다. 칼빈은 여기에서 라틴어에 통달하게 되었다.²⁷⁾ 불과 27세의 청년으로 저 유명한 「기독교강요」를 라틴어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라틴어에 통달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칼빈은 몽테규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당시 유명했던 ‘인문주의’에 열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늘 친밀하게 지내던 그의 사촌 올리브탕(Olivetanus)은 이미 종교 개혁에 가담하였고, 또한 왕립도서관의 설립 문제로 에라스무스와 서신을 교환할 정도로 인문주의자들의 친구였던 국왕의 주치의 쿨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²⁸⁾ 당시 파리 인문주의자들은 “회랍과 라틴 교부들과 성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고대교회를 현재의 개혁을 위한 모델로 여겼다.”²⁹⁾ 그들은 당시에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지 않았고, 루터를 이단으로 보고 싶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루터의 작품을 읽었다.³⁰⁾ 이처럼 인문주의에 열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칼빈은 의심할 것도 없이 루터와 멜랑톤의 저작들을 알게 되었으며, 최소한 그것들에 관하여 자주 들었음에 틀림없다.

칼빈은 몽테규 대학을 마친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직자 되기를 단념하고 올레안(Orleans)에 가서 법률을 배워 법률가가 되라”³¹⁾는 요청에 의해 올레안 대학으로 전학했다. 칼빈은 올레안 대학에서 불마르에게서 회랍어와 복음주의를 배웠다. 불마르는 공개적으로 개혁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루터의 개혁주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아 그의 사상은 개혁주의자 못지 않은 복음주의자였다.³²⁾ 칼빈이 여기에서 회랍어를 배움으로써 그가 나중에 크게 활약하는

25) 부스마, p. 34.

26) T. H. L. 파커, p. 33.

27) 이종성, p. 14.

28) 프랑시스 웬델, p. 26.

29) W. J. 부스마, p. 35.

30) Ibid.

31) 이종성, p. 16.

32) Ibid., p. 17.

데 절대 필요한 두 가지 날개 즉 라틴어와 희랍어를 얻게 되었다. 그후 나중에 왕립 대학이 된 곳에서 프랑소와 바타블과 함께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바젤에서 세바스티안 뮌스터의 지도하에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을 심화 시켰다.

칼빈이 이처럼 연구시절을 통해서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에 대해 정통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은 “에라스무스에 의해 고취된 기독교개혁을 위한 학문적 교육적 프로그램 속에 들어 있는 세 언어였다.”³³⁾ 그는 대부분의 연구과정이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주장에 의해 변경되어 왔으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³⁴⁾ 즉,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개혁자로 쓰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성서연구에 필요한 세 언어와 여러 가지 사상을 접하게 하셨던 것이다.

칼빈이 학구생활에 여념이 없는 동안 개혁운동은 점점 확대되어 갔으며, 칼빈 또한 가까이 지내던 인문주의자들을 통해서 개혁사상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개혁사상을 수락하려는 경향을 가졌다고는 생각 할 수 가 없다. 그는 그때까지 로마교회의 성벽 안에서 자랐고,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그들이 주는 영향을 섭취해왔다.³⁵⁾ 그러면 칼빈이 언제 회심하였는가? 정확한 회심시기는 알 수 없고 또한 회심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도 많지만 1533년 8월과 1534년 5월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1533년 8월 23일 그는 노용의 참사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회기 중에 역병을 막기 위한 행렬기도회를 조직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³⁶⁾ 후일에 칼빈은 자기들의 견해에 대한 용기도 없고, 로마교회의 관례를 계속해오던 개혁자들의 태도를 비난한 것을 보면³⁷⁾ 칼빈이 그 당시 개혁자중의 한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시 1년도 못되어 1534년 5월에 노용에 갔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목적인 그가 자기교회의 성직을 파기하기 위해서 갔다.³⁸⁾ 즉 그는 자기가 로마교회 성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성직자의 신분에 종말을 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의 회심은 이 두 날짜 사이에 있어야 한다.

칼빈 자신이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문서는 회심 날짜에 대해서 어떤 날짜

33) W. J. 부스마, p. 35.

34) 요셉 하르니안, 「칼빈의 조직신학 해석」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6), p. 60.

35) 이종성, p. 19.

36) 프랑시스 웬델, p. 48.

37) Ibid.

38) Ibid.

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의 구원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끼쳤을 흥미 있는 몇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처음에 나는 너무나 고질적으로 교황주의 미신에 열성적이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회심으로 그 진흙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사 나의 마음을 복종 시키셨고 온순한 성격이 되게 하셨다.”³⁹⁾

여기에서 칼빈은 자기가 고집스럽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칼빈이 그 당시까지 구할 수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저작들을 읽었다는 직접적인 암시와, 올리브땅과 불마르 같은 이들이 칼빈을 개혁운동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시도와 칼빈이 그들의 시도에 호응치 않았다는 직접적이 암시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심의 역사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칼빈은 회심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칼빈이 시편 주석 서문에서 회심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파거는 “칼빈의 인생도 닳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 섭리에 의해 큰 변화를 경험했고, 또 인도하심을 받은 자로서 시편주석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⁴⁰⁾라고 했다. 이처럼 칼빈은 회심을 통해서 “참 경건에 대한 어떤 맛과 지식을 얻은 것”⁴¹⁾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자신의 경건적 회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넘치는 사랑”⁴²⁾이라고 보나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넘치는 사랑의 경험은, “여러 권위들에 대해 제멋대로 복종하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만을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⁴³⁾ 이러한 체험이 후일 칼빈의 생애와 사상 속에 영향을 끼쳐 그의 신학 형성에 주요한 기반이 된 것이다.

3. 신학적 배경

칼빈의 구원론의 배경은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칼빈 신학을

39) Calvin, 「시편주석 서문」, p. 161.

40) T. H. L. 파커, P. 62.

41) Calvin, 「시편주석」, p. 161.

42) Inst, I, 2, 1.

43) T.H.L. 파커, p. 63.

이해 하고자 할 때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 신 중심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칼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존재한다. 인간의 최상의 종교행위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all-Holy God)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다”⁴⁴⁾하면서 철저한 신 중심 사상이 그의 신학의 근본 사상을 이루고 있다.

칼빈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위엄있고 두렵고 전능하신 분으로 계시하신다. 이를 넘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존재의, 그리고 창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주님으로 드러내신다.”⁴⁵⁾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까닭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 이외의 어떤 것에도 속박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 뜻에 부과되는 어떤 제한이나 조건에 어떤 의미에서도 지배받지 않으신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세상의 혼돈된 상태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에 의해 가장 정확한 질서대로 바로 이 혼돈들을 규제하시고, 또 그들의 본래의 목적을 따라 그것들을 감독하신다는 것을 결론으로 삼아야 한다.”⁴⁶⁾고 했다.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제한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의와 지혜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의 창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칼빈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안에 포함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칼빈은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들의 계속적인 연결과 밀접한 관련으로부터 필연을 창출하는 스토아 학파의 교리를 거부하고”⁴⁷⁾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지혜에 따라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정하셨고 지금은 그의 권능으로 그가 정하신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요 지배자이시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의 무생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관되어 정해진 목적을 향해 곧장 진행하고 있다고 단언한다.”⁴⁸⁾ 따라서 어

44) Louis Bouyer, The Spirit and Form of Protestantism, (Westminster, Md: The Newman Press, 1956), pp. 59-60.

45) 윌리엄 A. 스코트, p. 57.

46) Inst, I, 17, 1.

47)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p. 85.

48) Inst, I, 16, 8.

떠난 것도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552년 1월1일에 헌제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논문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제일되는 원인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의 명령이나 허용에 의하지 않고는 서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⁹⁾하면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의지에 의해 섭리되고 있다고 한다.

칼빈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피조)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의 뜻을 피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주권적이다.”⁵⁰⁾

이처럼 칼빈신학에서 일관하여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저항하는 자까지도 복종하는 힘으로 나타난 주권적 은총이다. 칼빈은 바울처럼 회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역사를 체험했고,⁵¹⁾ 그에 따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응답한 것이다.⁵²⁾ 따라서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영원불변하신 섭리에 따라 은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⁵³⁾

“영원불변하신 계획으로 하나님은 단 일회적으로 구원에 용납될 사람과 파멸로 자주 받을 사람들을 결정하셨다. 선택을 받은 사람에 관한 한 이 계획은 사람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만 하나님의 넓으신 은총에만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는 의롭고 공평하고 심원한 심판으로 생명의 문이 닫혀지고 말았다. 선택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소명을 선택의 증거로 생각한다. 동시에 의인은 그들이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선택을 나타내는 또 한가지의 증거라고 생각한다.”⁵⁴⁾

이와 같이 선택(예정)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계획안에서 그의 은총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원론 역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요한웨슬레의 신학 형성 배경

1. 시대적인 배경

49) John Calvin,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김기수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1), pp. 476-478.

50) 윌리엄 A. 스코트, p. 57.

51) Calvin, 「시편주석」 서문, p. 161.

52) 전경연, p. 72.

53) 이종성, p. 131.

54) Inst, III, 21, 7.

존 웨슬레(1703-1791)는 18세기 전 기간에 걸쳐 생존하였다. 18세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시대였다. 루터와 칼빈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길을 되찾음으로 기독교를 개혁한 이후 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신학적인 차이로 야기된 오랜 기간의 종교전쟁에 시달려 오면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정신은 퇴색되어졌으며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교회와 사회는 부패 할대로 부패되어 제2의 종교개혁이 요청되는 시대였다.

당시에 성행하던 사상은 이신론(Deism) 곧 자연신론이었다.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겪은 오랜 기간의 종교전쟁에 시달린 지식인들은 종교를 철저히 합리적인 인간의 태도를 제시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⁵⁵⁾이성의 시대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 사상은 진리탐구에 있어서 전통과 외적 권위보다 인간 이성의 권위에 더 중점을 두었다.⁵⁶⁾ 그 결과로 중세기에 있어서 학문의 왕좌에 앉았던 신학은 이성에 그 자리를 양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윌리엄 케논의 말대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계시종교의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발견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인간의 힘으로 발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신앙의 기본명제들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⁵⁷⁾

이신론은 “일종의 자연종교의 체계로서 초월적인 신을 주장하되, 그 신은 창조주일뿐, 이 세상의 과정에는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지 않으며, 우주나 세상은 그 자체의 운명에 일임되었다고 믿었다.”⁵⁸⁾ 그러므로 타계로부터의 하나님의 계시나 기사 이적 등의 초월적인 것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자연주의화 하는데 주력하고, 기독교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17세기, 18세기 종교가들은 “계시와 이성의 조화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신앙을 이성에 예속시키는 일을 강조하였다.”⁵⁹⁾ 또한 이러한 합리주의가 당시의 정통 신학계에도 침투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란 신의 재가를 받은 도덕체계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정도였다.”⁶⁰⁾

55) 윌리엄 케논, 「웨슬레 신학」 남기철 역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p. 16.

56) 송흥국, 「웨슬레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0), p. 15.

57) 윌리엄 스코트, p. 135.

58) 조종남, 「요한 웨슬레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p. 52.

59) 윌리엄 케논, pp. 17-20.

60) 워커.W,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 외 3인 편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8세기의 영국교회의 상태는 150여 년 동안의 투쟁, 분열, 박해 등을 거둬다 1689년 이후 종교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게 되었다.⁶¹⁾ 그러나 영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새로운 도시들이 출현하고 있었다. 계급들 간의 간격이 넓어졌고,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은 고통스러운 가난과 절망에 젖은 생활로 떨어졌다. 그러나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의 요구를 더 이상 충족시켜 줄 수 없게 된 낡은 중세 교구 구조들을 보유하고, 일반 서민보다는 신사층과 결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⁶²⁾ 희망 없는 삶에 종교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위로를 가져다주기를 목마르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합리주의로 향하는 새로운 경향의 설교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예배는 경직되고 구조화된 체로 남아 있어 점점 더 형식적으로 치뤄지게 되었다. 또한 “교회의 성직이 뇌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고,⁶³⁾ 성직자들이 신사층, 대지주층과 상인들과 결탁하여 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었고,⁶⁴⁾ 일반 교구민들의 요구를 들보는데는 점점 더 소홀히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교회는 영국 대다수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18세기의 교회는 부지불식간에 이성의 시대의 세력들과 결탁했고,⁶⁵⁾ 그 결과로 옥스퍼드의 감독인 세가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게 되었다.”⁶⁶⁾

당시의 도덕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부패 그것이었다. 17세기에는 청교도의 영향으로 기독교적 도덕 생활이 강조되었으나,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청교도들의 너무나 엄격하고 종교적인 생활에 대한 반동적인 현상⁶⁷⁾이 나타남과 어울려, 산업혁명의 결과로 도시로의 인구집중, 수공업자의 파산과 실직, 농촌 인구 감소, 저임금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다른 갈등과 긴장 실망등으로 자포 자기하며 혹은 비도덕적인 생활로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야비한 오락과 야만적인 경기가 유행했고, 음주가 만연되어 거리의 집들 중 사분의 일이 술집일 정도이었으며,⁶⁸⁾ 불법과 범죄가 급증하였다. 또한 음탕하고 저속한 연극이 부흥했으며 극장 주변과 거리에는 매춘부가 우글

1985), p. 376.

61) 윌리엄 스코트, p. 137.

62) Ibid.

63) 조종남, p. 21.

64) 윌리엄 스코트, p. 137.

65) Ibid.

66) 조종남, p. 21.

67) 이대섭, 「기독교교회사」 (서울 : 기독교대한성결교회출판부, 1985), p. 152.

68) 조종남, p. 21.

거렸다.⁶⁹⁾ 그런가 하면 국가 지도자들의 의해 노예매매가 장려되어 1776년에는 그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⁷⁰⁾

이처럼 웨슬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와, 인간의 책임 태만으로 말미암아 부도덕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다.

2. 체험적 배경

웨슬레는 1703년 3대에 걸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88년 후 요한 웨슬레가 죽을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의 동료 영국인들의 상당수 특히 하급계층 출신 영국인들의 상당수가 종교적 신앙과 실천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을 만큼 영향력 있는 하나의 종교운동을 형성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운동 즉 그의 신학사상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웨슬레의 생애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웨슬레의 구원관 형성의 체험적인 배경은 세 시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a. 인위적인 노력을 중심한 시기

웨슬레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열심에 있어서는 보통사람이 따라가기 힘든 대단한 노력과 정열을 기울인 사람으로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일생동안 지속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경건하고 열심 있는 태도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가정교육에 기인한다. 그의 부모들은 알미니안주의로 사람의 순종 곧 인간의 선행을 더 강조하였고, 따라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지 않았고,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다.⁷¹⁾ 따라서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가진 부모는 엄한 규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였다. 그러므로 웨슬레가 어렸을 때 그의 신학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자신의 도덕적 또는 영적인 노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려고 하는 자세였다고 볼 수 있다.

웨슬레는 청년 시절에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규율과 훈련」,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윌리엄 로의 「그리스도의 완전」,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로의 부름」 등의 신비주의 사상가들의 경건 서적을 탐독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신앙과 사상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엄격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⁷²⁾

69) 이대섭, p. 153.

70) 윌리엄 캐논, p. 28.

71) 조종남, pp. 22-23.

이처럼 웨슬레의 신앙의 첫 번째 시기는 선행을 증시하는 부모의 엄한 훈련과, 헌신과 종교적 행위에 역점을 두는 신비주의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로와 지려하고 자신의 수고의 영적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열렬한 노력 때문에 “은혜나 믿음에 대해서보다는 헌신, 순결 그리고 완전 등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⁷³⁾

이러한 신앙과 사상은 “옥스포드에 머무는 동안 개인적인 완전에 도달하려는 욕망으로 특징 지어져”⁷⁴⁾신성클럽(Holy Club)운동으로 나타났으며, 후에 조지아에서 선교를 하기도 했으나, 결국 자기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후에 웨슬레는 이 시절을 가리켜서 “자기는 아들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술회하였다.”⁷⁵⁾

b. 인본적인 신앙이 붕괴된 시기

이 시기는 웨슬레의 초기의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이 붕괴되고,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으로 바뀌어 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웨슬레에게 큰 도전과 영향을 준 것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이었다.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조지아에 선교사로 가는 도중의 배 안에서였다. 위험스러운 항해 기간에 모라비안들의 죽음을 초월한 듯한 신앙의 깊이와 견고성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들의 확신에 넘치는 신앙과 적극적인 생활을 자신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신앙은 이지적이고 확신이 없어 내적인 불안과 빈민 속에 있음을 발견하였다.⁷⁶⁾ 조지아에 도착하자마자 웨슬레는 그곳에 먼저 와있던 모라비안 목사로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의 자기 신앙에 어떤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1736년 2월 7일 일기에서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겸허하고 순수하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란다라고 대답했다. ... 그러나 그 말이 공허한 말임을 나는 알고 있다.”⁷⁷⁾이처럼 웨슬레는

72) 이성주, 「웨슬레 신학」 (서울 : 다니엘출판사, 1991), p. 42.

73) Ibid., pp. 43-44.

74) 윌리엄 스코트, p. 139.

75) 조종남, p. 24.

76) Ibid.

77) 존 웨슬리, 「일기」 존 웨슬리 총서, 7권, 김영운 역 (서울 : 웨슬레 사업회, 1983), 1736. 2. 7.

모라비안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인본적인 신앙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을 붕괴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던 첫 번째 요소였다.

이 시기에 웨슬레의 신앙에 작용한 두 번째의 요소는 점차 강렬해지는 실패감이었다.⁷⁸⁾ 웨슬레의 조지아 선교는 보기 드문 실패작이었다. 이것은 “인간중심의 종교활동의 실패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깊은 회의라 하겠다.”⁷⁹⁾ 이 경험은 웨슬레에게 좌절과 방황의 시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조지아 선교의 경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발전이 계기를 마련해 준 것 또한 사실이다. 조지아 선교를 통해서 웨슬레는 자신의 무능과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⁸⁰⁾

웨슬레의 초기 구원론을 붕괴시키는데 기여한 세 번째 요인은 낙관적으로 보았던 인간 본성에 대한 환멸이었다. 웨슬레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높이 평가하고 조지아로 갔다.⁸¹⁾ 아메리카 인디언은 문명인의 관습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디언을 그들의 본고장에서 보았고, 그들의 행동과 성격을 관찰한 결과,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웨슬레는 “생전 처음으로 원죄를 경험적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이제 인간의 본성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⁸²⁾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웨슬레로 하여금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의식을 자아내게 했다. 그의 아메리카 향해 중 모라비안 교도와의 만남, 선교의 실패, 인디언과의 접촉은 그가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여지없이 입증하였다.

웨슬레는 미국 조지아로 떠난 지 27개월만에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영국에서 만난 독일인 목사 피터 빌러는 웨슬레의 구원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웨슬레는 빌러 목사를 통해서 이신득의의 신앙을 소개받았다. 웨슬레는 이때까지 만해도 사람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⁸³⁾ 그러나 빌러와의 계속되는 교제 끝에 결국 빌러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거룩은 믿음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며, 거룩하여짐으로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78) 윌리엄 스코트, p. 140.

79) 조종남, p. 24.

80) 이성주, p. 49.

81) 윌리엄 캐논, p. 90.

82) Ibid., pp. 91-92.

83) 존 웨슬리, 「일기」 1783. 2. 18.

된다. 다시 말하면 웨슬레는 사람은 믿음으로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빌러와 나는 길게 이야기를 했다. 13년간의 방황 끝에 나는 비로소 기록을 믿음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 보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 나아가려고 애썼다. 사실 그것은 성화를 칭의 앞에 놓는 것이었다.”⁸⁴⁾

믿음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을 웨슬레는 성서적인 견해라고 확신했으며 자신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이 산 믿음이 자기에게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처럼 웨슬레에게 있어서 두 번째 시기는 인본주의적인 초기 구원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으로 바뀌는 전환기였다.

c. 울더스게잇의 체험

울더스게잇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거리의 이름이다. 이 거리에 있는 한 집에서 모라비안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성경공부와 기도회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레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날 저녁에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저녁에 웨슬레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결코 과소 평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되었다. 그가 루터의 「로마서주석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던 때 갑자기 그리고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예리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상하게 뜨거운 확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체험을 웨슬레는 자신의 회심(conversion)이라고 표현했다.

웨슬레는 울더스게잇에서 그가 이론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의 심령 속에서 직접 체험하였다. 이 체험은 그의 신앙 생활에 새로운 강조점을 가져다 주었다.⁸⁵⁾ 그는 “울더스게잇 체험 이전에는 거의 기독교인에 불과 했으며”⁸⁶⁾ 진실한 기독교인은 되지 못했다. 그는 그때까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울더스게잇 체험 후 18일 만인 1738년 6월 11일 옥스퍼드에서 “믿음으로의 구원”이란 설교에서 그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믿음의 성질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였다.⁸⁷⁾ 이는 웨슬레 설교의 새로운

84) Ibid., 1738. 3. 6.

85) 조종남, p. 25.

86) 윌리엄 캐논, p. 62.

87) E.H Sugden, ed., Standard Sermons of John Wesley, 2Vols(London:Epworth Press, 1991), I, pp. 19-25. 이후로 Sermons로 표기함.

전환점을 이룩하였다. 조종남 박사는 웨슬레의 올더스게잇 체험에 대해서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what”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변화된 것이 없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하는 “how”의 문제에는 이 체험이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왔다.⁸⁸⁾고 했다. 이는 곧 웨슬레의 구원관의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웨슬레의 구원관 형성에 끼친 영향 가운데 이 복음적 신앙 체험이야말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올더스게잇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며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주어진다든 성서적인 구원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웨슬레의 구원론은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주어진 내적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으며, 올더스게잇의 체험이 그의 구원관형성의 절대적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신학적 배경

감리교회의 창설자, 위대한 부흥운동가, 신학자, 그리고 교회 개혁 운동가로 날려져 있는 웨슬레가 그 당시 영국 내에 만연되어 있던 계몽사상 그리고 인본주의적 교회 풍토를 쇠신하고 17세기와 18세기 개신교의 맥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이에 대한 강조 때문이었다고 본다.

웨슬레는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는 개혁주의 전통과 일치하였으나 신학의 방법에 있어서는 독특한 면이 있다.⁸⁹⁾ 그가 자신을 “한 책(성서)의 사람”이라고 자칭한 것 이상 신앙체험을 중요시 한 것이 그의 신학의 특색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웨슬레 신학을 “경험의 신학”이라고 부른다.⁹⁰⁾ 그가 자신의 설교집 서문에서 “참되고 성서적이며 체험적인 기독교”⁹¹⁾를 설명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했듯이, 그는 신학을 늘 성서에서 시작하여 늘 체험에서 확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 성서와 체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체험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호응하는 것으로서의 체험이다.⁹²⁾ 그렇다고 이 체험이 성서의 권위를 우위

88) 조종남, p. 25.

89) Ibid., p. 58.

90) Ibid.

91) Ibid.

92) Ibid.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웨슬레는 기독교의 교리를 성령의 조명 아래 체험을 통하여 설교의 현장에서 그 교리에 대한 실제적 설명을 함으로 신약성서의 신앙을 참되게 표현하려고 힘썼다.⁹³⁾

이처럼 그의 신학을 체험에 근거한 것이라 할 때, 그 체험의 근거는 올더스게잇의 회심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로서 가장 잘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성서를 읽었다. ...그러나 믿지 못하였다. ... 그러던 중 올더스게잇 체험을 통하여 이성을 초월하여 성서에 순종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는 웨슬레 자신의 고백이 이점을 증거하고 있다.⁹⁴⁾

웨슬레 신학은 그때부터 새로운 입장에서 전개되어 나갔음을 본다. 즉 말로만 듣던 구원의 신학이 그의 신앙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긍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웨슬레는 늘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의 체험과 연관시켜 실제적인 산 신학(Living Theology)을 수립하였다.⁹⁵⁾

93) 조종남, “선교2세기에서 본 웨슬레 신학의 전망” 「회갑기념논문집」(서울 : 기성출판사), p. 205.

94) 조종남, 「웨슬레 신학연구」(부천 : 서울신대출판부, 1977), p. 31.

95) 조종남, 「회갑기념논문집」 pp. 205-206.

Ⅲ. 칼빈 예정론과 웨슬레의 선행은총론 비교

지금까지는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형성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두 사람의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기본입장에 대해서 상호 비교하여 두 구원론 사이의 일치되고 조화되는 면과 독특하게 다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A. 구원론 형성 배경에 대하여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은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그들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의 체험된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 경험을 그들의 사상체계인 신학으로 표현한 것이다.⁹⁶⁾ 즉 칼빈 신학과 웨슬레 신학은 각각의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확립된 신앙체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 출발점이나 강조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빈은 돌연한 회심을 통하여, 즉 자신의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행위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행위에 의해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였다. 이렇게 체험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경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응답적 행위도 용납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근거한 신학사상을 전개해 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론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이 형성되었다.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론과 그것을 변호 하려는 데서 나온 결과이다. 밀드레드 와인콕은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의 불경건한 입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빈은 예정교리를 주장하였다.”⁹⁷⁾고 한다.

이처럼 칼빈은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영광에 있음으로 그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예정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웨슬레는 울더스케잇의 체험을 통하여 칭의에 있어서 선행과 지적동의를 포함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영국교회의 신학의 굴레를 벗어나 이신득의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는 오랜 고투 끝에 하나님의

96) 전경연, PP. 18-22.

97) 밀드레드 와인콕,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 한영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7), p. 90.

은혜로 구원 얻는 신앙경험, 곧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력하고 부패 하였으므로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체험은 “은총만으로”라는 그의 구원론에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웨슬레 자신은 의롭다 함을 받기 이전에 의지적 노력으로 구원을 찾으려 했으며, 그 응답으로 올더스케이트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의 협력을 표현하는 선행은총을 강조 하게 되었다.

이처럼 칼빈과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라는 은총을 주장하면서도, 은총의 역사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체험을 배경으로 강조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다.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고, 웨슬레는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간 편에서의 순종과 헌신의 응답을 경험론적으로 전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B.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1. 타락의 원인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 만큼 만족해 하셨다. 그런 만족스런 장소에 처음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게 하셨다. 그러나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들은 아니었다는 것이 칼빈과 웨슬레의 견해이다.

하나님은 풍요한 조건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있는 인간들에게 타락을 경고하셨으나, 인간은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복종 하고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여버렸다는 것이다.⁹⁸⁾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하고, 불행하고 불결한 상태가 되었다.⁹⁹⁾

물론 처음 인간들은 그들이 갖고있던 자유의지를 남용하였다는 것이 칼빈과 웨슬레의 공통된 견해이며,¹⁰⁰⁾ 그 결과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인간 타락의 원

98) Inst, II, 1, 4.

Sermon, II, pp. 228-229.

99) Sermon, II, pp. 229-230.

100) Inst, II, 1, 2.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ed. Thomas Jackson 3rd ed. 5vols. (London:Epworth Press, 1938), p. 242. 이후로 Works로 표시 함.

인과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타락의 원인이나 처음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곧 불순종이 죄라는 점에서 칼빈과 웨슬레의 견해가 같으나,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이 영적인 삶에 대한 갈망의 결핍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 버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고 약간의 이성도 남아서 인간과 짐승을 구별 할 수 있고, 선악을 구별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연적인 성품은 완전히 말살되지 않은 채 일부분은 약화되고 일부분은 부패되어 기형적인 잔해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¹⁰¹⁾ 그렇지만 그는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¹⁰²⁾고 하였다.

이에 대해 웨슬레는,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교만과 아집, 그리고 욕망과 정욕에 빠지게 되었으며, 지음 받았을 때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⁰³⁾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간을 향해 값없이 베푸시는 선행적인 은총으로 자유의지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을 회복 받았다고 하였다.¹⁰⁴⁾

이상의 두 사람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 소멸, 웨슬레는 완전 소멸 후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일부 회복을 말하였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2. 원죄에 대하여

칼빈과 웨슬레는 원죄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담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그는 모든 인류의 시조였기 때문에 그의 타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다.¹⁰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그의 후손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인간들이 범한 최초의 그

101) Inst. II, 1, 9.

102) Ibid., II, 1, 9.

103) Works, VII, p. 334.

104) Ibid., VIII, p. 285.

105) Inst. II, p. 5.

Works, IX, p. 240.

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 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 버렸으며, 그 결과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이 원죄로 인하여 스스로 어떤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이미 부패성과 죄책을 지녔다는 것이다.

성서에는 분명하게 예정도 자유의지도 나타나 있음을 아무도 부인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철저히 주장하는 칼빈도 자유의지를 말한다. 물론 웨슬레의 자유의지와는 차이가 있지만, 다음 몇 가지는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같은 생각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맨 처음의 인간은 단순한 동물처럼 살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선과 악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관계가 있었다.¹⁰⁶⁾ 그런데 그 처음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자발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⁰⁷⁾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그가 가진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칼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선을 사모할 수도 없게 되었고,¹⁰⁸⁾ 웨슬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행은총이 아니고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⁰⁹⁾

이처럼 칼빈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죄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¹¹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의 남용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타락한 인간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웨슬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책임관계가 있어서 처음 인간이 갖고 있던 자유의지의 남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지만, 그 처음의 범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향력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는 아니라고 하였다.¹¹¹⁾

106) Inst, I, 15, 8.

Works, VI, pp. 215-216.

107) Inst, I, 15, 8.

Sermon, II, pp. 228-229.

108) Inst, II, 2, 19-21.

109) Sermon, II, p. 225.

110) Inst, II, 1, 7.

111) Sermon, I, p. 117.

결국 두 사람은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하였지만, 칼빈은 예정론을 밀바탕에 둔 표현이고, 웨슬레는 선행은총에 근거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타락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잔류하고 있지만,¹¹²⁾ 그것들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통찰을 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 주실 때에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타락으로 인해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행을 행하려면 자유의지로는 불충분하고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¹³⁾

이에 대해 웨슬레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지음 받았을 때 지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짐승의 형상, 그리고 관능적인 욕망과 정욕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¹¹⁴⁾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행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모든 사람들이 회복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유의지를 회복 받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고 한다.¹¹⁵⁾

C. 예정론과 선행은총에 대해서

1. 구원의 역사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부패되었고, 그 결과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인 자유의지마저도 상실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칼빈과 웨슬레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칼빈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전과정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시고, 인간은 수동적 입장에 있다고 하는 예정론을 주장한다.

112) Inst, II, 2, 12.

113) Inst, II, 2, 6.

114) Sermon, II, pp. 229-230.

115) Works, IX, p. 265.

칼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같은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더 멀리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다르게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든지, 현재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앞으로 이 세상에 출생할 사람이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 혹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혹은 멸망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이다.¹¹⁶⁾ 이 예정은 운명적이거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은총으로 인간을 대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칼빈은 구원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그 어떤 것을 미리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후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 속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즉 타락으로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인간의 구원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이라는 것이다.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선택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유기 또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¹¹⁷⁾ 또한 유기는 원죄에 근거한 것으로, 인간 스스로 죄의 상태에 빠져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 당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라 한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해야 하는데 그 중에 선택된 사람에게 받을 이유가 없는 은혜를 분배하시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공평하다는 것이다.¹¹⁸⁾

이처럼 칼빈의 은총 개념은 확고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확신 위에 자리잡고 있다. 칼빈에 있어서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려고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며, 그것은 항상 유효하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다.

웨슬레의 구원론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선행은총은 칼빈의 구원론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중예정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거부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웨슬레는 예정이 성서적이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고 확신했지만, 칼빈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이중예정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웨슬레는 “나는 성경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 한 유기(의 도리)에는 절대로 동의 할 수 없다”¹¹⁹⁾고 하였다. 웨슬레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

116) Inst, III, 21, 5.

117) Calvin, 로마서 9:18 주석.

118) L.B.Boettner, 「칼빈주의 예정론」 김남식, 홍의표 공역 (서울 : 보문출판사, 1990), p.137.

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그것이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것이어서 받는 사람들의 “어떤 것”에 따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값없이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 모두를 위해서라고 했다.¹²⁰⁾

따라서 웨슬레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아래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의 구원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함을 말했고, 인간이 자신의 믿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애적이고 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행동 안에 나타나는 능력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하여 웨슬레는 칼빈주의적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우주적으로 주어지는 선행은총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주장했다.¹²¹⁾

2. 구원의 대상(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 곧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완전한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는 것이 칼빈과 웨슬레의 견해이다.¹²²⁾

이에 대하여 칼빈은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¹²³⁾ 웨슬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원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이 지은 원죄의 죄책이 해결된다고 하였다.¹²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예수

119) Works, X, P. 211.

120) Works, VII, pp. 373-374.

121) 윌리엄 캐논, op. cit., p. 149.

122) Inst, II, 3, 2.

Sermon, I, p. 183.

123) Inst, II, 3, 2.

124) Works, IX, p. 303.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는, 만일 하나님이 전 인류를 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선택된 자들만 구원하도록 그 계획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구세주가 아니며,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구세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웨슬레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행적 은총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예비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이 선행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서 어떠한 제한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또한 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 모든 사람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만인에게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웨슬레에 있어서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¹²⁵⁾

3.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본래적인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의지로 그 본래적인 회복이 불가능했으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의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종교생활의 요점이다.

웨슬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에 대해서는 칼빈과 머리카락만큼의 차이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자체에는 칼빈과 거의 일치하지만, 의인의 조건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은총의 적용에는 차이가 있다.

칼빈은 복음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지만 죄인 자신의 무능력에서 오는 무지 때문에 복음 앞에선 인간은 본래부터 눈먼 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무능력한자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¹²⁶⁾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

125) 고신일, 「웨슬레안의 눈으로 본 칼빈주의의 인간이해」(서울 : 소망사, 1991), p. 87.

126) Calvin, 요한복음 6 : 46 주석.

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복음의 일반적인 초청에 더하여 특별한 내적인 부르심을 베푸셔서, 죄인 안에서 그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사역을 수행하여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다. 칼빈은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은 방해 될 수도, 거부될 수도 없는 것으로써, 이 특별한 내적 부르심이 일단 사람 속에 역사 하면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특별한 부르심의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이 은혜를 입혀 주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처럼 성령의 부르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여기에 대한 웨슬레는 선행은총을 통해 주어진 양심을 통해 죄를 자각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된 자유의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의인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조건은 불 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웨슬레는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총 앞에서 그 은총에 대한 우리의 수락(acceptance)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¹²⁷⁾ 하나님이 믿음의 은총을 주실 때 인간은 선행은총으로 회복된 자유의지 속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라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성화와 영화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독교인의 완전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선행은총은 구원의 출발점이며 아울러 구원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원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IV.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의 서정 비교이해

칼빈의 구원론은 예정론의 맥락에 놓여 있으므로 구원단계가 애매하다. 그러나 구원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역사를 인간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순서로써¹²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므로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

127) Herold, Lindstrom, 「웨슬레와 성화」 전종욱 역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4), p. 86.

128)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 엠마오, 1984), p.201.

난 것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칼빈 신학의 구원서정의 근거는 롬8:29-30으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사상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칼빈 신학에서 세부적으로 단계 순서를 규정하는데 ① 예정, ② 소명, ③ 중생, ④ 믿음, ⑤ 회개, ⑥ 칭의, ⑦ 성화, ⑧ 견인, (⑨ 영화)이다.¹²⁹⁾

이에 대해 웨슬레는 여러 번 구원서정의 윤곽을 요약했는데¹³⁰⁾ 이는 그의 신학적 관심이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택해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견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웨슬레가 말하는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현재의 것이며¹³¹⁾ 믿음을 가진 자가 실제 과거의 죄책, 죄의 세력과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것이고¹³²⁾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¹³³⁾ 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거룩하고 겸손, 은유, 참는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마음의 모든 죄가 씻겨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 후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증가한다.¹³⁴⁾ 이런 구원이해에서 구원관, 의인, 성화교리가 나왔는데 웨슬레는 성화에 비중을 둔다.¹³⁵⁾

또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다.¹³⁶⁾

웨슬레는 구원순서를 ①선행은총, ②칭의전 회개, ③칭의 ④신생=중생, ⑤점진적 성화, 신자의 회개, 영의 증거, ⑥성결, 그리스도인의 완전, (⑦영화) 으로 요약한다.¹³⁷⁾

A. 구원의 서정 관점 비교

129) 이 순서는 칼빈신학자들, John Murray, Louis Berkhof 등의 순서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는 ④ 믿음과 ⑤ 회개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강요를 중심으로 단계순서를 정했기 때문이다.

130) C. Williams, op.cit., p.40.

131) 표준설교50, “성서적 구원의 길,” 총서. II, 371.

132) 표준설교 1,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총서. I, 23.

133) Ibid., p.25.

134) 표준설교54,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대하여,” 총서. II, pp.450-451.

135) 나균용, “웨슬레 구원론의 특징,” 「신학과 선교 7집」 (부천 : 서울신학대학출판부, 1981), p.43.

136) 표준설교 1,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총서. I, 22.

137) 표준설교50, 표준설교54에서

칼빈과 웨슬레 신학은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그들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은 체험된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경험을 그들의 사상체계인 신학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칼빈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신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에 비해 웨슬레 신학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두 신학자의 신앙경험의 현격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영광에 있었으므로 그의 신학은 하나님과 그 은총을 적극 긍정하는 예정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실 그에게는 어떤 구원론의 체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이 예정론의 일부로 표현되고 있다. 칼빈은 급작스런 회심에서 저항하는 자까지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능력으로¹³⁸⁾ 순간적인 구원을 경험하였으므로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서정은 순간적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닌 것이다.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는 동시적 사건이며 그에게 구원 서정이라는 용어자체도 어울리지 않는다. 구원은 이중예정에 의한 선택에서 확정되었으며 선택개념에서 모든 구원의 서정이 논리적으로 귀결된 것이다. 성도의 견인도 그런 개념의 연장이다. 칼빈의 신학은 모든 면에서 예정사상에 근거한 결과론적인 신앙 고백적 진술이다.

이에 비해 웨슬레는 18세기의 인간이성 강조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주장하는 합리주의의 영향과¹³⁹⁾ 영국인의 종교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이신론사상¹⁴⁰⁾ 극도로 부패한 도덕상태¹⁴¹⁾ 칭의 얻는 믿음을 실제적 행위와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동의로 보는 영국교회의 변질된 신학¹⁴²⁾ 그리고 가정에서, 칼빈의 예정론에 반대하고¹⁴³⁾ 그리스도를 통한 만인구원을 강조하며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다는¹⁴⁴⁾ 부모의 신학적 입장 등의 영향으로 오랜 동안 선행을 통한 구원사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뇌에 찬 노력을 경주하였다. 웨슬레는 의지적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138) 주재용, "칼빈의 생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서울 : 한신대출판부, 1978), p.35.

139) E.S.Moyer, op.cit., p.385.

140) W.Cannon, op.cit., p.17.

141) 송홍국, 「요한웨슬레」, op.cit., p.7.

142) W.Cannon, Ibid., pp.47-53.

143) Tyerman, Life and Times of John Wesley (New York:Harper & Bros.1872), I, p.40 : Cannon, Ibid., pp.56-57.

144) 조종남, op. cit., p.23.

찾으려 했으며 울더스케잇 체험에서 응답을 얻은 것이다. 웨슬레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것이지만 그 은총의 범위에서 그는 구원의 과정을 시간적으로 그의 신학에서 전개한 것이다. 그는 경험을 기초로 구원의 길에서 인간의 응답적인 면을 체계화하였다.

이 차이점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다.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고 웨슬레는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간 편에서의 순종과 헌신으로서의 응답에 의한 시간적 구원서정을 전개한 것이다.

또 웨슬레는 칭의와 특별히 성화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의 죄 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죄를 원죄와 원죄에 의한 특수한 죄로 보고 구원은 죄 문제의 해결에 있으므로, 칭의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점진적 성화과정과 완전 성화에서 원죄의 부패성을 해결하는 실제적 생명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 그의 구원서정에서 드러난다.

반면 칼빈은 예정론 사상으로 구원단계에서 어떤 인간적 의지적 응답에 의한 하나님과의 협동도 철저히 배제시킨다.

이상의 관점차이로 칼빈과 웨슬레는 구원서정의 체계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B. 구원서정상의 차이

앞에서 고찰한 두 신학자의 관점차이가 사실상 모든 비교의 근원이지만 여기서는 세부적인 차이를 비교한다.

1. 칭의론

웨슬레의 칭의론의 근거는 행함이 아니요 오직 믿음이다. 웨슬레는 옥스퍼드 시절에 영국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의 선행의인화와 성화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웨슬레는 금식과 선행 등 여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웨슬레는 선행의인화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그러던 중에 그는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울더스케잇 거리에 있는 소집회에 참석하여 한 예배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도중에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된

다. 이 사건을 통해 웨슬레는 선행의인화를 거부하고 루터의 신앙의인화를 받아들일게 된다. 즉 웨슬레는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한다.

웨슬레는 루터의 의인화와 십자가 신학을 그의 신학의 기본적인 전제로 삼는다. 웨슬레를 변화시킨 거듭남의 체험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일어났다. 웨슬레의 구원론의 출발은 철저히 루터적이며, 종교 개혁적 입장이다. 웨슬레의 의인화는 수동적으로 주어지고 전가되는 은혜요, 이성적 사변이나 선행적 노력에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웨슬레는 루터의 의인화 사상인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또한 웨슬레의 신앙이해도 루터처럼 주관적 경험이 아닌 객관적 은총의 은사임을 말한다. 물론 웨슬레는 루터처럼 '용서받은 죄인'임을 받아들이지만, 웨슬레는 루터의 전가되는 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본성적 의까지도 주장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다. 웨슬레의 의인화 사상의 근거는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성령이 믿음을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본다. 그리고 이 믿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이다. 웨슬레는 의인화(혹은 칭의)라는 말을 용서와 같은 말로 본다. 즉 의인화는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칭의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라고 말한다.

칼빈은 신앙이 성령의 주요한 일이라고 본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신앙이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선택과 결단, 확고 부동한 신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다.¹⁴⁵⁾ 칼빈은 신앙이 복음 말씀을 듣는데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생긴다고 말한다. 신앙과 말씀은 영원한 관계에 있으며 이 복음 말씀에서 이탈되면 신앙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¹⁴⁶⁾ 칼빈은 믿음으로 의인된다 함이 인간이 성취한 그 어떤 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포착하고 이 의로 옷 입음으로서 하나님 존전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처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⁴⁷⁾ 이것을 하나님쪽 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145) Inst, III, 2, 33.

146) Inst, III, 2, 6. 29.

147) Inst, III, 3, 2.; 11, 2.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 율법을 경험한 죄인을 그의 총애와 은혜로서 전적으로 용인하시고,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한다. 첫째는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죄용서, 칭의)으로써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중생)됨으로서 우리는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신장할 수 있다.¹⁴⁸⁾ 칼빈은 믿음이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이러한 칭의가 종교생활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고 말한다. 칼빈은 칭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리스도와 교재를 하게 된 죄인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죄의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업고 하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서는 것이다.”¹⁴⁹⁾

칼빈과 웨슬레 모두 루터의 신앙의인화를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양자는 모두 선행에 의한 의인화를 거부한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임에 의해서 가능함을 보여준다. 칼빈과 웨슬레는 모두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를 주장한다. 즉 이들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성취한 의가 전가된다고 말한다. 이들은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칼빈과 웨슬레의 칭의론은 모두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루터의 신앙의인화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2. 성화론

웨슬레는 루터의 의인화 사상인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루터는 죽는 날까지 ‘용서받고 의로워졌으나 죄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 또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주장하였으나, 웨슬레는 전가되는 의뿐만 아니라 본성적 의까지도 주장한다. 즉,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레는 우리의 본성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웨슬레는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요, 믿음은 종교의 문이요, 사랑의 성화는 종교자체라고 말할 만큼 성화를 강조한다. 웨

148) Inst, 11, 1.

149) Inst, III, 17, 1.

슬레의 구원론의 중심은 성화임을 알 수 있다. 웨슬레의 성화 출발점은 루터의 의인화 사상이다. 그러나 그는 루터의 의인화 사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웨슬레는 루터와는 달리 죽기 전에 완전한 의인화와 성화의 회복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웨슬레의 성화의 조건도 믿음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성화도 믿음으로 시작됨을 말한다. 성화는 의인화와 동시에 거듭난 영혼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화하는 은총이다. 성화는 의인이 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은혜에서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여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다. 웨슬레는 성화가 믿음과 선행으로 가능함을 말한다. 성화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성화의 완성은 인간의 참여, 곧 선행이 있어야 한다. 웨슬레는 의인화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고 전가되는 은총이 다가오지만, 믿음과 선행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본성으로 화하는 은총, 곧 성화를 받는다고 말한다. 웨슬레는 행동을 강조하는 산상수훈을 중요한 설교본문으로 택하였다. 산상수훈 설교는 그의 성화신학을 잘 표현 해 주고 있다. 웨슬레는 그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사회적 성화 개념과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강조한다.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에라스무스와 더불어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하였다. 본래 루터는 율법의 제1용법, 즉 죄를 깨닫게 하고 각성시켜 주는 역할과 율법의 제2용법,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악한 자를 처벌하는 역할만을 말하였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와 멜랑톤 그리고 루터의 영양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강조했던 칼빈은 소위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한다.¹⁵⁰⁾ 칼빈은 율법의 제 3의 용법, 곧 성화의 체적질로서의 율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칼빈은 신자들이 앙모하는 주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고 확고하게 이해하는 데 율법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말한다. 또 율법에 대해서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법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성도는 이와 같이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 그들은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아무리 정성껏 노력하더라도 무관심한 욕의 짐이 되어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 율법은 욕에 대해서 마치 가지 않는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 영적인 사람이라도 욕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여전히 부단한 자극이 되어 일시도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다.¹⁵¹⁾ 이렇게 칼빈은 율법의 적극적이 기능을 강조한다. 칼빈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율법이 철폐되지 않고 오히려 완성되며, 율법이 성도의 성화를 위한 체적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

150)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5), p. 394.

151) Inst, II, 7, 12.

조한다.

주께서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시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선언하심으로(마5:17-18), 주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준수가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또 이것은 옳은 말씀이다. 그는 도리어 율법 위반을 고치러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교훈은 여전히 범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가르치며 경고하며 책망하며 시정함으로써 율법은 우리가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며 준비시킨다.¹⁵²⁾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는 양심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을 말한다. 즉 성도들의 성화의 차원에서 율법의 역할을 주장한다. 웨슬레는 칼빈과 더불어 산상수훈 등에 나타난 율법을 성도들의 성화 생활의 좋은 교훈과 채찍질로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웨슬레는 칼빈의 율법의 제3의 용법까지도 수용한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구원의 확증과 풍성한 구원을 위해서는 행함과 사랑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웨슬레는 칼빈처럼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채찍질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웨슬레와 칼빈의 성화론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웨슬레는 성화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성화는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성화에는 인간의 자유 의지적 참여에 의한 선행을 포함한다. 즉 웨슬레는 성화가 복음적 신인 협조적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인간의 자유 의지적 응답 내지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화가 성령의 역사로서의 선행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칼빈은 성화가 인간의 자유 의지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칼빈은 인간의 의지가 노예 의지라고 주장한다. 칼빈주의자들은 칼빈과 달리 인간의 의지는 노예상태이던 한 순간에 예정된 자에게 부여되는 의인화와 성화를 말한다. 그러나 웨슬레는 자유의지의 참여에 의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본성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웨슬레는 루터의 의인화 사상을 받아들이지만 루터와는 달리 죽기 전에 완전한 의인화와 성화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죽기 전에 온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웨슬레는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또한 루터나 칼빈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본성으로 바꾸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웨슬레는 이러한 본성에 동참하는 동반자가 된다고 이해한다. 웨슬레에게 완전은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절대적인 완

152) Inst, II, 7.14.

전이 가능하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 완전은 상대적이요, 동기적이다. 죽음 이전의 완전한 성화의 개념은 사랑과 선행을 온전히 실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웨슬레는 성화의 소극적 의미로 성결 혹은 죄 없음을,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랑을 말한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죽기 전에 완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웨슬레는 죽기 전에도 완전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웨슬레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보다도 더욱 더 은총의 낙관주의자이다. 즉 그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강조하지만 죄보다도 은총의 높이를 더욱 강조하는 은총의 낙관주의자이다. 따라서 그의 종말론은 물론 내세를 강조하지만, 내세보다는 현세의 천국을 더욱 강조한다.

3. 로마서 8장 29 - 30절에 대한 구원의 서정 비교¹⁵³⁾

a)칼빈의 견해

칼빈은 로마서 8장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절대적인 자신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밝히고 영원하신 경륜에 의해 성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로마서 8장29절-30절과 9장은 에베소서 1:3-14과 더불어 예정론의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다.

· 로마서 8장 29절-30절의 구원의 순서

예지 → 예정 → 부르심 → 의인 → 영화

선택할 이들을 미리 아시고, 부르시며, 의인이라 칭하시고, 영화로 이끄시는 단계를 보여준다.

(1)예지, 무조건적 선택, 예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로마서8:29)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순복케하는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이 선택의 바로 그 순서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필연성을 이전에 선언한 바 있다. 그러므

153) J.Calvin, 「칼빈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5), pp. 264-270.

로 우리가 주님의 선택-우리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정을 힘입어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우리는 이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을 우리 음에 지니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한, 우리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부담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에 언급해 놓은 하나님의 예지는 어떤 미숙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대로, 단순히 미리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자녀들을 버림받은 자들과 구별해 오신 수양을 의미한다.

(2)“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낮아지심을 본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가능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이 소명, 칭의,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그것들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 지금 십자가를 지게하는 자들을 그가 부르시고 동시에 의롭다 하시어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낮아짐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영광을 잃지 않게 하셨다.

(3)“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란, 신자가 부르심을 받는 시간부터 그가 죽는 순간까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공로 없이 의의 전가의 뜻으로 사용한다.

(4)“영화롭게 됨”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장차 ‘영화롭게 됨’으로 해서 그들은 고통과 치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영생의 기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광도 보증된다.

로마서 8장29절-30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서 나타난 구원의 서정은 예지와 예정은 역시 이전 영원하신 경륜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가 현재의 조그만 고통에 낙심 말고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제시하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중생, 회심, 신앙, 성화, 견인의 요소들이 없었지만 전체

적 흐름과 방향성을 볼 때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제시하였으므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반응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이며 구원사적인 면에서 구원의 예정교리에 대한 분명한 구절임을 알 수 있다.

b) 웨슬레의 견해

웨슬레는 구원의 서정을 다양하게 말하였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의 전도활동의 중간기이며 사상의 가장 원숙기였던 1765년에 발표한 '성서적 구원의 방법'이란 설교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①선재은혜의 역사 ②칭의전의 회개 ③칭의와 죄의 용서 ④신생 혹은 중생 ⑤칭의 후의 회개와 점진적 성화 ⑥완전성화이다.¹⁵⁴⁾

로마서 8장29절-30절에 대한 웨슬레의 신약주해 설교인 '예정에 관하여'에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서정을 보여준다.

· 하나님의 미리아심 → 예정 → 부르심 → 의롭게 하심 → 영화롭게 하심.

로마서 8장 29절 - 30절의 구원서정 상으로 비교하면, 칼빈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나 순서상으로 나타난 주요개념들에 대한 이해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 특별히 예정에 대해서는 구원에 관계된 칼빈의 일반예정론을 반대하여 선택된 자들만의 제한 속죄가 아니라 만인속죄론을 주장한다.

웨슬레는 “ 이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구원의 자율적 성취'라는 설교문에서 밝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구원의 거점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회개인데 이것은 죄인이 어떤 시기에 자신의 추한 모습과 죄과를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존재를 깨닫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칭의와 죄의 용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칭의는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귀함을 말하는 것이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과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인간의 믿음에 의해

154) 송홍국, 「웨슬레 신학과 구원론」, (서울 : 기독교서회, 1975), p.97.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믿기 전에 참된 회개와 함께 나 자신의 의를 완전히 끊어 버려야 한다.

믿음에 의한 칭의와 함께 우리는 신생을 경험한다. 칭의는 하나님과 관계개선으로 객관적 사실이요, 중생은 인간이 죄의 세력에서 놓임 받아 새로운 마음을 받는 내적 병화로서 주관적 사실이다. 이 두 가지는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거나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먼저요, 중생이 거기에 따른다.

그러나 웨슬레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순간 새로 남을 얻고 씻음을 받고 정화되고 성화 되었을지라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씻음 받고 정화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육, 즉 악한 성품이 비록 정복되었다 하나, 그대로 남아있어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우리가 점차로 성화 되면, 우리는 완전성화에 이르게 된다. 웨슬레는 이 성화, 완전성화인 기독교자의 완전을 천사와 같은 절대적 완전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우리의 전 생활이 이 순결한 사랑에 의해 지배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리하여 완전성화에 이른 자는 육체의 생명의 종식과 함께 영화 된다는 것이다.

V. 신학적 특징

A. 요한 칼빈의 신학적 특징

1. 성경중심의 신학

개혁교회에 있어서 칼빈주의 신학사상은 개혁교회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성경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외침아래 개혁사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인정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개혁신학사상은 신구약 성서를 신앙과 사고와 행위의 최고규범과 권위가 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개혁신학사상이란 일차적으로 신조(creeds)나 신앙고백(confession)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교회의 전통이 물려준 신조나 신앙고백의 타당성을 성경의 빛 앞에서 수용한다. 성서만이 개혁신학사상의 최고권위가 되는 것이다.¹⁵⁵⁾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성서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한다.

‘누구든지 성서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정당한 교리에 관해서 매우 적은 지식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우리가 말씀으로써 지도 받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¹⁵⁶⁾

칼빈의 믿음에 관한 지식의 신앙적 규범의 근거는 성경이었다. 그의 신학은 철학적 사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계시 속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며, 성경의 증거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고의 총체이다. 그는 어떤 권위보다도 성경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다. 1536년의 ‘제네바 신앙고백’에서 그는 분명한 성서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성서만이 신앙과 종교의 규칙임을 따를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인간의 의견에 의해서 고안된 어떤 다른 것을 섞지 않는다.’¹⁵⁷⁾

성서는 그에게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며 규범이었다.¹⁵⁸⁾ 칼빈 신학의

155) J.L.Neve,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3). p.440.

156)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p.42.

157) J. K. S. Reid, 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 Westminster, 1965), p.26.

158) Inst, VI. 21, 3.

특징은 “전체로서의 성서”의 이해와 실제적 동기에서 촉진된 것이다. 그는 성서에서 이해되는 하나님, 말씀, 은총, 거룩을 보고 계시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으려 했다.¹⁵⁹⁾ 기독교 강요를 쓴 의도를 칼빈은 제 3판 서문에서, 성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읽는 자에게 성서의 안내서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¹⁶⁰⁾ 칼빈 신학은 그 권위의 기초를 성서에 두는 성서주의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서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권위에서 나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나온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칼빈의 성서관은 개혁사상에 밀바탕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영광중심의 신학

칼빈의 신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상이다. 그는 인간행위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세상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키는 일에 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⁶¹⁾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학이 바로 칼빈의 신학이었다.

3. 하나님의 섭리중심의 신학

칼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상과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God's providence, providentia Dei)의 교리가 있었다.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그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추진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인간의 악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¹⁶²⁾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활동은 이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중심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섭리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으니 또한

159) 박봉량, “칼빈의 예정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p.129.

160) 전경연, op. cit., pp.70-71.

161) Bengt Hagglund, 「History of Theology」 박희석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91), p.365.

162) Ibid., p.365.

그 만물의 주인이 이끄는 데로 피조물이 생성, 변화, 소멸됨을 수용하는 자세이다.

4. 예정론 중심의 신학

칼빈의 예정론은 흔히 칼빈주의의 '중심교리'로 불려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서의 예정으로 이해되어 졌다. 예정론은 이 세상의 전체행로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구원이나 저주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예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구원에 관계한 예정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혹은 작정)이라고 부르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오셨다. 이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조건하에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혹시 영생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간은 양자 중 어느 목표엔가 도달하도록 창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어느 사람을 가리켜 그가 생명에 또는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라고 말한다.”¹⁶³⁾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다. 칼빈은 인간이 버림을 당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이 악의 원천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자신만의 비밀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용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림에 있어서도 여전히 공정하시나, 이 공정성은 모든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예정사상이 인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파괴하기보다는 마땅히 그것을 견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중예정론은 어거스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인 것이다.¹⁶⁴⁾

B. 요한 웨슬레의 신학적 특징

1. 구원의 신학

163) Inst, III, 21.5.

164) Hagglund, pp.366-367.

무엇보다도 웨슬레 신학의 특징은 '구원의 신학'이라고 하는 점일 것이다. 웨슬레의 신학이 '구원의 신학'이었다는 증거는 그가 일생을 전도자로서 구령 사업에 헌신했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의 신학의 핵심이 성화론 즉 기독교자 완전을 가장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¹⁶⁵⁾ 그리스도인의 완전관념의 중요성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해에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말기신 거대한 위탁물이며 이것을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 같다"¹⁶⁶⁾고 말하였던 것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이 교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웨슬레의 관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워진 영으로서 현실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에 있었다. 웨슬레의 성화 및 완전개념이 루터나 칼빈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은 웨슬레의 현재적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구원을 향한 웨슬레의 열정은 실존적이라는 평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말에 대한 웨슬레의 역점은 언제나 우리가 현재 여기서(now and here)적로부터 해방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웨슬레의 신학의 특징은 은총의 역사를 미래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맡겨 놓고 체념하는 듯한 종교개혁자들에 반하여 보다 실존적인 관점에서 현재 여기(now and here)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였다는 데에 있다.¹⁶⁷⁾ 이러한 현재적 관심으로 웨슬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 속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웨슬레가 현재적 구원에 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서 실존적인 성향을 보여준다는 사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또한 실제적인 신학이라는 점이다.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의 믿음을 정의함에 있어서 웨슬레는 믿음이란 머리 속에서만 맴도는 생명없는 차디찬 동의나 이론과 같은 사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인 것이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여 동적인 개념을 말하였다.¹⁶⁸⁾

그래서 웨슬레는 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회복시키며 교회의 갱신을 가져 보고자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또한 웨슬레와 그의 동역자들의 관심은 '의'였고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의 곧 '성결'이었다. 이를 위하여 사람

165) Herold Lindstrom, op, cit., p. 26.

166) Works, VIII. p. 238.

167) 조종남, 「웨슬레 신학연구」 p. 66.

168) Ibid, p. 30.

의 구원은 웨슬레의 중요한 관심사였다.¹⁶⁹⁾ 그의 동역자들에게 권하였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한가지입니다.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¹⁷⁰⁾

2. 체험의 신학

서두에 웨슬레의 신학형성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웨슬레의 신학은 ‘체험의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웨슬레 신학이 성서에서 교리를 연역하여 신학화하는데 크게 역할을 한 것은 그의 신앙 체험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호응하는 것으로서의 체험이다.¹⁷¹⁾ 그렇다고 이 체험이 성서의 권위를 우위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웨슬레는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성령의 조명 아래 체험을 통하여 설교의 현장에서 그 교리에 대한 실제적 설명을 함으로 신약성서의 신앙을 참되게 표현하려고 힘썼다.¹⁷²⁾ 웨슬레에게 있어서 이러한 체험에 대한 강조는 역시 현재적 구원에 관한 그의 관심으로부터 연유되며 그의 구원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독교자 완전의 성화개념에 밀착되어 있다.

루터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칭의’에 그리고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바라보므로 ‘이중예정’에 초점을 두었던 바와 같이 웨슬레는 현세에서의 구원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성화’ 곧 ‘기독교자 완전’에 그의 강조점을 두었다. 루터의 급격한 회심이 ‘믿음으로 의로와 진다’는 의미의 새로운 국면을 전적으로 그에게 심어 주었듯이 웨슬레 역시 그가 회심한 1738년 5월 24일의 회심 경험을 통하여 그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그의 신학을 체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울더스케잇의 회심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성서를 읽었다.그러나 믿지 못하였다.그러던 중 울더스케잇 체험을 통하여 이성을 초월하여 성서에 순종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웨슬레 자신의 고백이 이점을 증거하고 있다.¹⁷³⁾

웨슬레 신학은 그때부터 새로운 입장에서 전개되어 나갔음을 본다. 즉 말로만 듣던 은총의 신학이 그의 신앙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긍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웨슬레는 늘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의 체험과 연

169)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p. 28.

170) Sermons I, pp. 32-33.

171) 조종남, “선교 2세기에서 본 웨슬레 신학의 전망”, p. 205.

172) Ibid.

173) 조종남, 「웨슬레 신학 연구」, p. 31.

관시켜 또한 논리를 생활과, 그리고 교회를 사회와 연관시키면서 실제적인 산신학을 수립하였다.¹⁷⁴⁾ 그뿐 아니라 웨슬레의 신학이 '체험의 신학'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타당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생활속에서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 깊이 가질 것이다. 즉, 웨슬레의 신학, 곧 체험의 신학은 그의 생활 자체였으며, 그의 전생애는 전도자의 생활로서 현실에서의 구원에 관심했던 그의 신학적 노력과 완전한 일치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창의적 종합 신학

웨슬레 신학의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학자가 말하듯이 그가 성서에 있는 교리를 끌어내서 신학화함에 있어서 회랍의 신학, 라틴신학, 중세기의 신학, 모라비안의 신학, 종교개혁자들의 신학등 모든 신학의 방법론과 강조점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빼서 창의적으로 체계있게 종합했다는 데 있다. 이런 면에서 웨슬레 신학은 전 기독교의 신학에 친근감을 준다.¹⁷⁵⁾ 웨슬레의 신학은 종합이라는 구조안에 용해되어 있다. 그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Christ for us)와 경건주의자들이 말하는 우리 안의 그리스도(Christ in us)를 종합하고 있으며 성결의 개념을 로마 카톨릭의 강조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그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강조를 채택했다.¹⁷⁶⁾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성화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선행으로서 거룩한 삶을 강조했고 성자로서 공을 쌓기 위하여 수도원 생활, 고행 등을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마치 구원은 믿음이 아닌 선행으로서도 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웨슬레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룩의 개념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믿음 만으로라는 주장을 통합시켰던 것이다. 즉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생활까지 미치는 깊이와 동시에 거룩한 삶을 강조함으로 "믿음만이요"와 "거룩한 삶"의 두 가치를 양극화시키지 않고 둘을 구원의 역사의 테두리 안에서 종합시킨 것이다.¹⁷⁷⁾ 또한 웨슬레의 최고의 강조로 보여지는 성결론의 구조속에서도 성결이 주어지는 동시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두 요소가 함께 발견되어 진다.¹⁷⁸⁾ 또 점진적인 발전과 순간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174) 조종남, 「회갑기념 논문집」, pp. 205-206.

175) Ibid. pp. 207-208.

176)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p. 29.

177) 조종남, 「회갑 기념 논문집」, pp. 208-209.

178) Colin Williams, op, cit., p. 130.

종말론에 있어서도 우리의 현재적 삶에 관계하는 동적인 면과 함께 이 현세의 모습은 지나가 버린다는 점이 아울러 강조되어 있다.¹⁷⁹⁾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웨슬레는 성서의 어떤 곳에서는 그 술어가 특히 지상에서의 상태를 지적하며 다른 곳에서는 영광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여 종합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한 마디로 웨슬레의 신학은 둘 중의 하나(either - or)가 아닌 양쪽 다(both - and)를 취하면서 양쪽의 강점을 충분히 섭렵하고 있는 창의적인 종합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웨슬레의 신학은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존적인 성화의 신학이다. 또한 웨슬레의 신학은 체험의 신학이며 창의적 종합의 신학이며 더 나아가 성서 자체를 완전히 조명하고자 하는 성서적 신학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언급은 아무리 강조 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단편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웨슬레의 신학은 균형에 초점을 두고 유기적으로 말해질 때에만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 신학의 특색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화의 사상임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그만큼 웨슬레에게 있어서 성화론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웨슬레 신학은 18세기 영국의 타락상 속에서 솟아 난 구원의 진리였으며 현실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한 성화에 그 초점이 있었다.

179) Ibid., pp. 214-215.

V. 결 론

지금까지 칼빈과 웨슬레 신학이라는 양대 신학의 산맥을 살펴보았다..

칼빈은 돌연한 회심을 통하여 즉, 자신은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행위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힘에 의해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였으므로 그의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표현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어떤 인간의 응답적 행위도 용납될 수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강력한 예정사상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전개한 것이다. 예정사상은 발전하여 선택과 유기의 이중예정으로 확립되었으며 그런 맥락에서 칼빈의 구원론은 이해될 수 있다.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그가 이전에 개념적으로 깨달은 기독교 완전 사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칭의에 있어서 선행과 지적동의를 포함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영국교회의 신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신 칭의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는 오랜 고투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신앙경험 곧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력하고 부패하였으므로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의 신학에서 구원단계의 순서를 체계화시켜 놓았다. 웨슬레의 구원론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한 구원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웨슬레 자신이 의지적 헌신의 결단과 자기 포기 및 절망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그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구원서정이 순간적인 선택에 의한 구원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인데 비해 웨슬레의 구원은 점진적이며 순간적으로 진행되므로 구원순서가 시간적인 순서인 것이 큰 차이점이다. 칼빈의 구원순서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과 선택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응답을 웨슬레가 나타내므로 칼빈주의에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알미니우스주의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웨슬레는 알미니우스가 아니라 웨슬레주의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신인 협동의 사실은 알미니우스와 달리 인간의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처럼 완전타락과 전적 부패함을 주장하면서, 원죄사상을 그의 죄관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아래 회복된 자유의지로 순종과 헌신의 의미로서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웨슬레는 선행은총에

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서정에서 시종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한 구원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서정에서 사실상 문제점은 웨슬레의 성결, 기독교 완전사상과 칼빈의 현세에서는 불완전한 성화개념의 차이이다. 웨슬레는 성결을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성서가 강조하는 핵심적 사상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칼빈은 성화의 개념은 동일하게 언급하면서도 그것은 사후에야 이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 기독교의 완전은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로마교회의 선행에 의한 구원의 타락된 신학사상으로부터 성서적이고 본질적 구원의 도리인 이신 칭의 사상을 적극 긍정하고 체계화하여 개혁을 완성하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한 성서의 핵심교리이다. 즉 개혁자들의 이신 칭의 사상의 진보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두 신학을 비교한 의도가 어떤 것의 우열을 가늠하고자 함이 아니며, 신학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봉사하고 섬겨야 하며 또 두 신학이 그 동안,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신앙을 인도해야 하므로 비교를 통하여 동질성과 차이점을 살펴 상호 보완이 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 구원의 완성에 있고, 당연히 신학은 그 과정을 확실히 제시해야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이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칼빈 신학과 웨슬레 신학의 궁극적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서정상의 차이는 있지만 목표하는 바는 같으므로 이를 신앙인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관심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 헌신을 두 신학으로부터 발췌하여 오늘의 여러 신앙적 불일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실 웨슬레는 칼빈의 이중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예정사상을 제외하고는 사상적인 일치를 이루고 그것을 토대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칼빈과 웨슬레 둘 다 성서를 적극적으로 긍정한 성경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장로교의 대부분이 신학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칼빈 신학의 예정론의 실생활적 한계점을 웨슬레 신학에서의 성결에의 목표를 삼는 신앙의 모습들을 긍정하고 또한 웨슬레 신학의 인본주의적으로 흐를 위험요소를 조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신앙을 강조 보완할 때 한국

교회는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이신 칭의의 개혁주의적 교리를 완성해 가는 길이며 현대교회의 문제점들과 신자의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A. 칼빈 신학

1. 1차자료

- Calvin,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강요」, 김중흡의 3인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5.
- _____ 「시편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2.
- _____ 「이사야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2.
- _____ 「예레미야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2.
- _____ 「로마서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2.
- _____ 「요한복음주석」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82
- _____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김기수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 2차자료

- 박봉량. “칼빈의 예정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pp.128-162.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이종성, 「칼빈」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2.
- Boëtter, L.B.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칼빈주의 예정론」, 홍의표 역, 서울 : 보문출판부, 1990.
- Murrey, John.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Westminster Press, 1965,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0.
- Reed, R.C. The Gospel as Taught by Calvin. 「칼빈주의 뿌리와 열매」, 홍병창 역, 서울 : 교회교육연구원, 1985.
- 파커. T.H.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2.
- 부스마, W.J, 「칼빈」 박종숙 역 서울 : 나단출판사, 1991.
- 웬델, 프랑시스, 「칼빈주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 기독교문화사.

하르니안, 요셉, 「칼빈의 조직신학해석」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6.

B. 웨슬레 신학

1.1차자료

Wesley John, 「존웨슬레총서」 총10권 웨슬레사업회, 서울 : 한국교육도서출판사, 1983.

_____,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 정행덕 역, 서울 : 전망사, 1961.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ed. Thomas Jackson 3rd ed, 14Vols, London:Epworth Press, 1938.

_____, Standard Sermons of John Wesley. ed. E.H. Sugden 2Vols, London:Epworth Press, 1951.

2.2차자료

박장균, 「웨슬레의 은총론」 「신학과 선교」 1집, 부천 : 서울신학대학출판부, 1972.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 성서연구사, 1996.

송홍국, 「웨슬레신학」.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0.

_____, 「요한웨슬레」.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0.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_____, 「회갑기념논문집」 서울 : 기성출판사.

_____, 「웨슬레 신학연구」 부천 : 서울신대출판부, 1977.

Milderd B. Wynkoop, Foundation of Wesleyan Arminian Theology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한영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6.

Cannon William R., The Theology of John Wesley. 「웨슬레 신학」, 남기철 역,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6.

Cell Gorge C.,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존웨슬레의 재발견」, 송홍국 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Harper, Steve., Message of the Wesley's 「웨슬레의 멧세지」 신광준 역. 서울 : 도서출판 웨슬레, 1986.

Lindstrom, Harold., Wesley and Sanctification. 「웨슬레와 성화」, 전종욱 역, 서울 :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1984.

C. 논문 및 기타

- 김재혁,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비교이해.” 부천 : 서울신학대학, 1986.
- 안수도, “칼빈의 예정론.” 서울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4.
- 홍순우, “구원론에 나타난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비교연구”, 신학석사 학위논문 서울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1.
- 이대섭, 기독교교회사 서울 : 기독교대한성결교회출판부, 1985.
- 이인수, “요한웨슬레의 성화론에 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 논문, 부천 : 서울신학대학, 1990.
- 서도원, “칼빈의 예정론과 웨슬레의 선행은총론 비교연구” 신학석사학위 논문 서울 :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3.
- 오세호, “존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난 구원개념” 신학석사학위, 대전 : 목원대학교대학원, 1996.
- Kuiper, B.K. The Church in History. 「세계기독교회사」, 김해연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3.
- Moyer, E.S. Great Leaders of Christian Church. 「인물중심 교회사」, 광안진, 심재원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6.
- Neve, J.L. 'A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1,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교회사」, 서남동역, 대한기독교서회, 1983.
- Walker, W. A History of Christian Church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외 3인 공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2.
- 휴튼 시드니, 「기독교회사」 정주은 역 서울 : 나침반사, 1991.
- 스코트 A. 윌리엄, 「개신교 신학사상사」 김쾌상 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Bouyer, Louis, The Spirit and Form of Protestantism, Westminster Md:The Newman Press, 1956.